

일요일	월요일	화요일	수요일	목요일	금요일	토요일
<b>1</b> <b>1주 미국 고용보고서</b> ① <b>한국 수출입</b> 10월 YOY 수출 +4.6%, 수입 +1.7% ② <b>미국 고용보고서</b> 10월 비농업고용 +1.2만, 실업률 4.1% ③ <b>미국 JOLTS</b> 9월 구인건수 744만(예상 798만, 전월 786만) ④ <b>ISM 제조업-서비스업 PMI</b> 10월 제조업 46.5, 서비스업 56.0	<b>2</b> 한국 <b>11월 수출입동향 YoY(1일)</b> 11월 제조업 PMI 중국 <b>11월 차이신 제조업 PMI</b> EU 10월 실업률 미국 10월 건설지출 MoM <b>11월 ISM 제조업 PMI</b>	<b>3 미국 JOLTS</b> 한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1월 외환보유고 영국 <b>11월 소매판매 YoY</b> 미국 <b>10월 JOLTS</b>	<b>4</b> 중국 <b>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</b> EU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미국 <b>11월 ADP취업자 변동수</b> 10월 공장수주 MoM <b>11월 ISM 서비스업 PMI</b>	<b>5</b> 한국 <b>3분기(잠정) 경제성장률 YoY</b> 독일 10월 공장수주 MoM 11월 건설업 PMI EU 10월 소매판매 MoM 미국 10월 무역수지	<b>6 미국 고용보고서</b> 미국 <b>11월 고용보고서</b> - <b>비농업고용, 실업률, 임금상승률 등</b> <b>12월(잠정)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</b> <b>12월(잠정) 미시간대 소비자지대지수</b> <b>12월(잠정)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</b> 한국 10월 경상수지 일본 10월 가계 소비지출 YoY 10월 실질임금 YoY EU <b>3분기(최종) 경제성장률</b>	<b>7 12월 전망</b>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 증시 나홀로 약세 심화. 이는 무역분쟁 재개, 반도체 지원법 및 IRA법안 폐기 우려 등 트럼프 2기 정권에 대한 불안감 등이 일시에 반영된 데서 기인. 단기간 급반등은 어려워보이나, 12월 중 미국 연말 소비시즌, 연준의 12월 금리인하,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불안감 완화 등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확보할 수 있기에, 바닥 확인 후 저점을 높여가며 박스권 흐름 예상
<b>8</b> <b>2주 미국 CPI</b> ① <b>미국 CPI</b> 10월 CPI 2.6%(예상 2.6%, 전월 2.4%) ② <b>미국 PPI</b> 10월 PPI 2.4%(예상 2.3%, 전월 1.9%) ③ <b>3Q24 어닝시즌</b> 오라클, 어도비, 브로드컴 등 ④ <b>RBA 통화정책회의</b> 지난 11월 회의는 4.35%로 동결	<b>9</b> 일본 3분기(최종) 실질 경제성장률 10월 무역수지 중국 <b>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</b> <b>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</b> EU <b>12월 섹터 투자자 기대 지수</b> 실적 <b>오라클</b>	<b>10 RBA 통화정책회의</b> 중국 11월 수출입동향 YoY 일본 11월(잠정) 공작기계수주 YoY 미국 <b>11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</b>	<b>11 미국 CPI</b> 한국 11월 실업률 일본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미국 <b>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</b> <b>11월 실질 평균시간당 임금 YoY</b>	<b>12 미국 PPI</b> 영국 11월 RICS 주택가격지수 10월 건설업생산 MoM 10월 경제성장률 10월 산업생산 MoM 미국 <b>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</b> 한국 11월 수출입물가지수 YoY 회의 <b>ECB 통화정책회의</b> 실적 <b>어도비</b> 실적 <b>선물, 옵션 동시만기일</b>	<b>13</b> EU 10월 산업생산 MoM 미국 <b>11월 수출물가지수 YoY</b> <b>11월 수입물가지수 YoY</b> 실적 <b>브로드컴, 코스트코</b>	<b>14 FOMC</b> 11월 FOMC에선 연준이 0.25%p의 금리 인하로 9월 0.5%p의 금리 인하에 이어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.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"물가 안정과 (최대)고용이라는 두 목표가 대체적으로 균형"을 이루고 있다며 인하 배경을 설명.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하게 2%로 향하고 있다는 문구는 삭제. 트럼프의 당선, 예상보다 강한 물가와 고용에 12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%까지 하락.
<b>15</b> <b>3주 미국 FOMC</b> ① <b>미국 PCE</b> 9월 헤드라인 +2.1%, 근원 +2.7% ② <b>미국 FOMC</b>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③ <b>중국 실물지표</b> 10월 소매판매 +4.8%, 산업생산 +5.3% ④ <b>3Q24 어닝시즌</b> 마이크로 등	<b>16 중국 실물지표</b> 일본 <b>10월 핵심기계수주 YoY</b> 중국 <b>11월 신규주택가격 YoY</b> <b>11월 산업생산 YoY</b> <b>11월 고정자산투자 YoY</b> <b>11월 소매판매 YoY</b> <b>11월 실업률</b> 미국 12월 뉴욕 제조업지수	<b>17 미국 실물지표</b> 영국 10월 실업률 EU 10월 무역수지 <b>12월 ZEW 서베이 예상</b> 독일 <b>12월 ZEW 서베이 예상</b> 미국 <b>11월 소매판매 MoM</b> <b>11월 설비가동률</b> <b>11월 산업생산 MoM</b> <b>10월 기업재고 MoM</b> 실적 <b>미국 선거인단 투표</b>	<b>18 마이크로 실적</b> 일본 11월 무역수지 11월 수출입 YoY 영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0월 주택가격지수 YoY EU 10월 건설생산 MoM <b>11월(최종) 소비자물가지수 YoY</b> 미국 <b>11월 건축허가 MoM</b> <b>11월 주택착공건수 MoM</b> 실적 <b>마이크론</b>	<b>19 미국 FOMC</b> EU 10월 경상수지 한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미국 11월 선행지수 11월 기존주택매매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 실적 회의 <b>나이키</b> 회의 <b>FOMC</b> 회의 <b>BOE 통화정책회의</b> 회의 <b>BOJ 통화정책회의</b>	<b>20 미국 PCE</b> 독일 11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미국 <b>12월(최종)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</b> <b>12월(최종) 미시간대 소비자지대지수</b> <b>12월(최종)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</b> 12월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11월 개인소득 11월 개인소비지수 <b>11월 PCE 디스플레이터</b> <b>11월 PCE 근원 디스플레이터</b>	<b>21 BOE 통화정책회의</b> 지난 11월 BOE통화정책회의에서 영국은 기존 금리를 5%에서 4.75%로 인하. 그 이전 9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었고 BOE의 11월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두번째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BOE의 목표치인 2%를 하회함에 따라 금리 인하를 하였으나 향후 금리 인하 전망에 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.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20%로 반영.
<b>22</b> <b>4주 배당기준일</b> ① <b>한국 수출입(~20일)</b> 11월 YOY 수출 +5.8%, 수입 -1.0% ② <b>성탄절(25일)</b> 미국, 한국, 영국 등 휴장 ③ <b>한국 배당기준일(26일)</b> 마지막 거래일 -2거래일까지 기한 ④ <b>한국 배당락일(27일)</b> 예상 배당금만큼 추가 하락 발생	<b>23</b> 한국 <b>11월 ~20일까지 수출 YoY</b> <b>11월 ~20일까지 수입 YoY</b> 영국 3분기(최종) 경제성장률 YoY 3분기 경상수지 3분기(최종) 수출 MoM 3분기(최종) 수입 MoM 미국 11월 시가조연방국가활동지수 <b>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지수</b>	<b>24</b> 미국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11월 신규주택매매 12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휴장 <b>미국(13:00 조기종료)</b>	<b>25 성탄절</b> 휴장 <b>미국, 영국, 한국</b>	<b>26 한국 배당기준일</b> 지수 <b>한국 배당기준일</b>	<b>27 한국 배당락일</b> 중국 3분기(최종) 경상수지 지수 <b>한국 배당락일</b>	<b>28 BOJ 통화정책회의</b> 지난 10월 BOJ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은 기존 금리를 0.25%로 2회 연속 동결. 이는 당시 앞두고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일본 여당의 다수당 지위 상실로 인한 정국 혼란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.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"예단할 수 없다"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 표명. 12월 금리 정책은 아직 불확실하나 인상 가능성도 존재.
<b>29</b> <b>5주 주식시장 폐장일(30일)</b> ① <b>한국 주식시장 폐장일(30일)</b> 2024년 마지막 거래일 ② <b>한국 연말 휴장일(31일)</b> 한국, 일본, 독일 등	<b>30 한국 주식시장 폐장일</b> 미국 12월 MNI 시가와 PMI 11월 미경주택매매 12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한국 <b>11월 산업생산</b>	<b>31 한국 연말 휴장일</b> 미국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10월 S&P 코어로직 CS20개 도시 MoM 12월 델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한국 <b>1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</b> 휴장 <b>한국, 일본, 독일</b>	<b>12월 주간 경제지표</b> 수 주간 원유재고 [EIA(에너지정보청)] 수 <b>주간 주택용자신청자수 [MBA]</b> 목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[노동부] 목 30년물 고정모기지금리 [프레디맥] 목 <b>미 연준 대차대조표 보고 [FED]</b> 금 <b>주간 원유 채굴장비수 [베이크하우스]</b> 금 어닝 인사이드(택트넷) 금 <b>KB 주택시장동향 [KB국민은행]</b>	<b>12월 주요 일정</b> 미국 ISM 제조업 PMI(3일) 미국 고용보고서(6일)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(10일) 한국 선물, 옵션 동시만기일(12일) 미국 CPI(11일) 미국 FOMC 금리 결정(19일)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(19일)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(19일) 한국 주식시장 폐장일(30일)	<b>1월 주요 일정</b> 미국 ISM 제조업 PMI(4일) 미국 CES 2025(7일~10일) 미국 FOMC 의사록 공개(9일) 미국 고용보고서(10일) 미국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(13일~16일) 미국 CPI(15일) 한국 금통위(16일)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(24일) 미국 FOMC 금리 결정(30일)	